

대구, 올해 '더굿나잇' 135곳 선정한다

세계마스터즈육상대회 1만 명 이상 방문 예상...숙박 서비스 품질관리



대구광역시시는 '2026 대구세계 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개최에 대비해 우수 숙박시설 '더굿나잇' 선정 계획을 마련하고, 대구를 찾는 전 세계 선수단과 관람객에게 품격 있는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6 대구 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는 국내외 선수와 동반 가족을 포함해 약 1만 명 이상이 대구를 방문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대구시는 대회 기간 숙박 수요 증가에 대비해 지역 우수 숙

박업소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추천 우수 숙박업소 브랜드 '더굿나잇'의 고급화를 추진한다. 올해는 '더굿나잇' 135개소를 선정한다. 이 중 '일반호텔'로 분류되는 중저가 비즈니스호텔은 62개소, 일반호텔 중 여성 친화적 환경을 갖춘 '여성안심숙박업소'는 36개소가 포함된다. 선정은 기존 지정 업소와 신규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본 환경, 시설 수준, 고

객서비스 등 평가 항목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해 고득점수로 선발한다.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시설이 노후한 업소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선정 절차는 관할 구·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구·군에서 1차 현장조사와 평가를 거친 뒤, 대구시와 숙박협회가 2차 합동 검증을 통해 최종 선정하는 방식이다. 대구시는 선정업소의 요금과 편의시설 등 숙박 정보를 공식 숙박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더굿나잇' 인증 로고 표지판도 제작·설치한다. 특히 여성안심숙박업소에는 로고 표지판과 함께 여성 안심벨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홍 국장은 "2026 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제대회에 걸맞은 우수한 숙박 인프라를 갖추겠다"며 "모두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숙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윤석 기자

인공지능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상북도, 국립경국대학교, 아마존웹서비스즈 코리아, 업스태이지 협약



경상북도는 23일 국립경국대학교, 아마존웹서비스즈 코리아, 업스태이지와 함께 '인공지능 혁신인재 양성 및 공공·산업의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를 위한 4차 산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인 아마존웹서비스즈 코리아, 국내 대표 인공지능 기업 업스태이지 및 지역 국립경국대학교와 손잡고 인공지능 분야 실무형 고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이번 협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혁신인재 양성 공모사업' 대응과 연계해, 지역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인공지능 실전형 고급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 실무형 특화 커리큘럼 구성 및 석·박사급 전문 연구 인력 양성 ▲ 대학과 기업 간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 전

환 산학 공동 프로젝트 수행 및 성과 공유 ▲ 인공지능 전환 문제 해결 프로세스 구축 및 실적 성과 확산 ▲ 기업 전문가 멘토링 및 대학-기업 간 인턴십 운영 등 4대 중점 방향을 중심으로 협력하는 인재 양성 사업이다. 국립경국대학교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혁신대학원'

설립을 검토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실전형 인공지능 고급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안동은 유교의 분향이자 인재를 길러 국가의 기틀을 세운 선비의 고장이다. 경상북도는 이러한 전통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산업 현장의 문제를 인공지능 전환 과제로 직접 연결하는 실전형 교육·실증 연계 모델을 구축해, 교육이 산업 혁신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경국대학교를 중심으로 산·학·관 협력을 강화해 공공, 제조, 바이오, 피지컬 간오 등 지역 전략 산업 분야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인공지능 전환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역 기반의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안동에서 시작된 인공지능 인재 양성이 공공과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윤석 기자

경남 3.3조원 새해 첫 대규모 투자유치

도청에서 두산에너지리티(주) 등 19개 기업, 9개 시군과 투자협약 체결



경상남도가 원자력, 우주항공, 방산 등 주력 산업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경남의 인공지능 대전환(AI)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경남도는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19개 기업 및 9개 시군(창원·사천·밀양·양산·함안·창녕·고성·하동·함양)과 함께 약 3조 3,0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남 전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약 1,1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해 지

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남의 전통적 강점인 원자력, 우주항공, 방산 분야는 물론, 지능형 로봇과 미래 모빌리티(UAM), 제조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도내 각지에 생산시설을 신·증설할 예정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올해 19개 기업이 약 3조 3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해 주셨다"며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

원시에는 두산에너지리티(주) 등 원자력 및 방산·로봇 분야 8개 기업이 약 4,000억 원을 투자해 생산라인을 구축한다. 사천시에는 ㈜디엘에이치아이 등 항공기 부품 및 발전 설비 관련 3개 기업이 44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확정했다. 하동군에는 한국남부발전(주)이 1조 3,000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복합발전소를 건립, 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 밀양시에는 ㈜비푸드 제조공장 과 소재부품 기업 오웰테크(주) 생산공장이 들어선다. 양산시에는 의약품 물류 플랫폼 기업인 우정약품(주)이 가산일 반산업단지 300억 원을 투자해 본사를 확장 이전한다. 고성군에는 엔디티엔지니어링(주)이 무인기종합타운 내 무인 드론 상용화 시설 및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기자재 공장 신설에 550억 원을 투입한다. 경남도는 지난해 말 기준 129개 사로부터 10조 4,02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낸 바 있다. 최성룡 기자

"BTS 부산공연 특수 탐탄 숙박업소 불법행위 안돼!"

부산시, 숙박업소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기획조사 실시

부산시는 오는 6월 개최 예정인 'BTS(방탄소년단) 월드투어 부산공연(6.12~6.13)'을 대비하여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행사장과 관광지 주변 등의 숙박업소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23일 부산시가 개최한 '민관 합동 가짜인정 대책회의'의 결정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후속 대응이다. 당시 부산시는 대형 이벤트 기간 중 숙박요금 급등을 막기 위한 '가격 안정 대응 매뉴얼' 구축과

현장 점검 강화를 약속했으며, 이번 집중 단속은 그 약속을 이행하는 핵심 단계이다. 단속은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공연 기간을 탐탄 숙박요금 폭리, 미신고 숙박영업 등 불법행위를 근절해 관광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실시된다. 특별 단속은 숙박업소의 공공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중점 실시하며, 주요 단속내용은 ▲관광객 안전을 위협하는 공유숙박 중개 플랫폼을 통한 오피스텔, 주택 등 미신고 숙박업 영

업행위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정객대 요금표 미게시 행위 ▲공정하고 투명한 숙박 예약 문화 정착을 저해하는 게시된 숙박요금 미준수 행위 등이다. 시 특별 사법경찰과는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선량한 숙박업주를 보호하고 부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위반행

위에 따라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특사경 공중위생수사팀은 특별 단속기간 동안 숙박업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불법 숙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선제적 대응으로 부산의 관광 이미지를 지키고 관광객들에게 부산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글로벌 도시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용우 기자

울산시,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실시해

초등학교 입학생 4종, 중학교 입학생 3종 필수 예방접종 완료 권고



울산시는 오는 3월 입학을 앞둔 초·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실시한다. 예방접종 확인사업은 집단생활을 시작하는 아동·청소년의 감염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입학 전 필수 예방접종 항목을 완료하도록 권고하는 사업이

다. 지난 2001년부터 초·중학교와 협력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백신 5차, 폴리오미오(PPV)백신 4차, 홍역·볼거리·풍진(MMR)백신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4차 또는 약독

화 생백신 2차)백신 등 4종이 대상이다. 중학교 입학생은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Tdap)백신(또는 파상풍·디프테리아(Td)백신) 6차, 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인유두종 바이러스(HPV)백신 1차(여

학생) 등 3종을 접종해야 한다. 입학생을 둔 보호자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자녀의 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접종을 마쳤는데도 누리집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의료기관에 전산 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다만 예방접종 급기자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진단 의료기관에 급기자로 전산 등록을 요청하면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초·중학교 입학생은 단체생활로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만큼 입학 전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하고 필요한 접종을 완료해 안전한 학교생활을 시작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호근 기자

서부산권 교통 대전환 신호탄 동서연결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3일 강서구 예코델타시티(장낙대교 건설 중점부)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장낙대교) 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공식은 성희염 시 미래혁신부시장을 비롯해 이종환 시의회 부의장, 구정장, 시의원, 구의원, 지역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착공을 축하했다. 행사에는 ▲국민로 ▲내빈소 개 ▲사업결과 보고 ▲기념사 ▲축사 ▲기공식 퍼포먼스 등 순으로 진행됐다. 장낙대교 건설공사는 강서구 생곡동(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서 명지동(예코델타시티)까지 연장 1.53km, 왕복 6차로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시는 서부산권 교통수요 대응

도모를 구축하고 기존 낙동강 횡단교량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장낙대교 건설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간 낙동강 횡단 교량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 우려 등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해 주요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앞서 착공한 대저대교, 영곡대교를 이어 이번 기공식을 통해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게 됐다. 시는 이번 기공식을 시작으로 2030년 완공까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특히 공사 중에도 유관기관, 관계전문가 및 환경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해 자연과 공존하는 교량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장낙대교는 예

코델타시티를 지나 영곡대교, 승학터널, 북항 배후도로까지 이어지는 동서 3축 핵심 교통인프라"라며, "서부산권의 물류 수송과 교통 소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 예코델타시티 등 신성장 거점 연결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업이 강서구와 서부산권의 균형발전을 앞당기고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동서 통합 핵심관문역할을 할 것으로, 완공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용우 기자

구미시, 올해 하반기 급행버스 첫 도입...30억원 투입

구미시가 도시 핵심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는 급행버스를 도입해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시는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올해 하반기에 급행버스 2개 노선을 20대를 운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주요 간선 노선의 운행횟수를 대폭 늘린 데 이어, 올해는 이동 속도와 효율을 높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이번 도입되는 급행버스는 일반 노선보다 정차 정류장을 최소화해 이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거지역과 산업단

지 등 장거리 이동 수요가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 정류장만 정차해 운행 효율성을 높이고, 출·퇴근과 통학 시간대 시민 이동 편의를 크게 개선한다. 기존 시내버스 노선과의 환승 연계도 강화해 전체 대중교통 체계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함께 끌어올릴 방침이다. 급행버스 도입과 함께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도 병행한다. 시는 올해 총 24억4천만 원을 투입해 승강장과 안내시설 등 이용 환경을 전반적으로 정비한다.

신형 유개승강장 50개소를 교체하고 스마트승강장 10개소를 새로 설치하는 한편, 승강장 도색과 정비 60개소, 전등과 의자 100개소를 설치해 대기 환경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버스정보안내기(BIT) 시인성 개선 및 교체 70대, 시내버스 LED 행선판 교체 30대를 추진해 정보 전달의 정확성과 가독성도 높인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급행버스 도입은 시민의 이동 시간을 줄이고 도시 전반의 교통 효율을 높이

기 위한 변화"라며 "노선 운영과 인프라 개선을 통해 시민 이동 편의가 점진적으로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구미시가 여성친화기업 7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2천만원의 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 시는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선정 기업에는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기업당 최대 2천만원 규모의 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 한윤석 기자